"구증구포 제다법 혼선… 기본에 충실하자"

박동춘 소장, 부산국제차어울림축제서 '초의선사에게 차를 묻다' 특별전 열어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는 11월 3~5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제13회 부산국제茶어울림축제 특별기획전 '초의선사에게 차를 묻다 展'을 개최했다. 박동춘 소장이 토크콘서트에서 대중에게 한국차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초의 선사의 흑요 다관이 그믐달처럼 현묘했다. 다성(茶聖)이자 수행자였던 초의 선사의 친필서신에는 차에 대한 설명과 시가 담겨 있었다. 추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그리고 유학자 김명희 등과 주고받은 서신이다. 전시실 가운데는 '동춘차'를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끝 맛에 남은 차향이 입안에 하루 종일 머물렀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는 11월 3~5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제13회 부산국제茶어울림축제 특별기획전 '초의선사에게 차를 묻다' 展을 개최했다. 전시기간인 11월 4일, 박동춘 소장은 '초의 선사는 어떻게 '초의차'를 완성했을까?'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한국 차의 현시대 과제와 해결법을 제안하고 미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동춘 소장은 "무엇보다 바른 제다법을 소개하고 전문 제다인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박 소장은 부드럽지만 의지가 강한 어조로 차 문화를 위한 바른 방향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녹차를 좋은 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구증구포 제다법은 혼선이 너무 많습니다. 냉기와 독소가 있어 몸을 해치는데 어떻게 좋다고 하겠습니까? 바른 제다인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제다 기술과 안목은 놀라울 만큼 발전되어 있습니다. 대중과 공유하고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개최했습니다. 차의 기초는 제다와 탕법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한국차를 위한 저의 소명입니다."

이어 초의 선사의 제다법을 기초로 한 '동춘차'에 대해 "이미 냉독을 제거했다. 기초를 중시해 이룬 결과"라고 했다.

한국차 방향 및 활성화 위해
다례보단 차 본연에 집중할 때
"전문 제다인 양성에 힘쓰고
제다 기술 공유해 문화 중흥"

"초의 선사의 제다법은 살청(무쇠솥에서 차를 덖음)과 유념(찻잎 비비기), 찻잎을 털어 다시 재건하기, 마지막으로 온돌방에서 하루 잠재우기라는 기초에 근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온도변화를 변화무쌍하게 하는 불조절입니다. 불을 장악해야 합니다. 불의 높낮이를 관찰하며 차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 조절이 중요하며 또한 탕법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초의 선사의 차를 이었던 응송 스님은 '차는 찬 것인데 뜨겁게 마시는 것이 차이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박 소장은 "다례 중심 문화에서 차 본연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례는 40여 년 전 그 시대에는 필요한 형식이었으나 이제 차가 중심이 되는 다례로 개편돼야 합니다. 좋은 차를 마시기 위한 다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초의 선사는 동다송 말미에 '백운과 명월 두 객을 허락하니 도인의 자리 이것이 최상승이로다(許白雲明月爲二客道人座上此爲勝)'라고 했습니다. 즉, 불이선을 상징하고 원융을 의미합니다. 자연과 합치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차 정신입니다. 현대인의 정신문화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차 문화가 중흥해야 할 이유입니다."

한편, '초의선사에게 차를 묻다' 특별기획전시는 한국 차 문화의 원형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전시는 1부 '수행의 흔적 : 시문(時文)에 담다'로 시·서·화에 능했던 초의 선사의 다양한 면을 고찰하고, 2부 '지음(知音)의 아름다운 교유 : 시와 편지에 나투다'에서는 시와 차를 통해 초의 선사의 교우 관계를 설명했다. 마지막 3부 '다구 : 시대를 담다'에서는 근대 응송 스님의 차 생활과 이명균 현대 도예작가가 재현한 청자 다구 작품이 전시됐다.

하성미 기자

축구공으로 꿈·佛心 동시에

원오사, '명정FC' 창단



원오사가 어린이 축구단 '명정FC'를 창단하고 스포츠 포교에 앞장선다.

원오사(주지 정관)는 11월 4일 운봉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축구단 명정FC 창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사진〉

원오사는 매주 토요일 어린이 축구교실을 열어왔다. 원오사 축구교실은 건강을 챙기고, 친구와의 친밀함까지 동시에 얻어 참가하는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높다. 게다가 주지 정관 스님과 신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단체복 및 간식 등 풍부한 지원을 받는다. 이번 창단을 맞아 원오사는 지도사 1급 자격을 갖춘 석운용 감독을 정식으로 영입해 실력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창단식 후 명정FC는 양정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축구단과 창단기념 친선경기를 펼쳤다. 친선 경기는 부산FC 선수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기운을 북돋았다.

주지 정관 스님은 "축구단은 법회에 찾아오지 못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눈높이 포교"라며 "축구를 방편으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밝게 커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천년고찰 장안사 황금빛 국화가 '활짝!'

사계절 주제 사진 공모도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이 축제에 참여한 대중에게 국화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붉은 단풍과 노란 은행잎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이 천년고찰 장안사를 둘러쌌다. 경내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국화꽃이 활짝 펴 방문객을 반겼다.

천년고찰 장안사(주지 정오)는 11월 3일 '제1회 천년고찰 장안사 국화향기를 품다'를 개최했다. 장안사 경내와 주차장을 잇는 다리 불광교 개통식과 함께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정여 스님(前 범어사 주지), 청량사 보혜 스님 및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안사는 부산 기장을 대표하는 사찰로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열린 사찰로 발돋움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국화 분재는 기장군에서 활동하는 국화동호회 회원들이 손수 작업한 작품들로 200여 점이 마련됐다. 국화전과 함께 열린 오재현 작가의 불모전을 감상하던 시민들은 합장하며 미소 지었다.

하성미 기자

장애인과 우정 20년 '한마음체육대회'

부산 보현회 11월 5일 경쟁 없는 운동회 열어


부산불교 보현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제20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사상 괘법초등학교에서 개최했다.

축구경기가 펼쳐지는 운동장에 40명의 인원이 들어섰다. 일반 축구 규정과는 거리가 먼 경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웃음꽃을 피우며 쉴 새 없이 공을 주고받았다. 경기이지만 경쟁은 아닌 화합의 자리, 부산불교 보현회가 20년간 이끌어온 한마음체육대회 현장이다.

부산불교 보현회(회장 안성이)가 11월 5일 '제20회 한마음체육대회'를 부산 사상 괘법초등학교에서 개최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20년 동안 장애인과 함께해온 행사다. 매년 한마음체육대회에는 성우원, 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 평화의 집, 체리동산, 한마음직업재활원 등 부산에 있는 장애인 단체가 참여해왔다.

행사 내용은 소박했다. 축구, 훌라후프 돌리기, 보물찾기 등 경쟁 없는 작은 운동회로 진행됐다. 훌라후프는 몇 번 돌리자 이내 떨어졌고 제기차기도 생각보단 안 됐지만 실망하는 얼굴은 없다. 보물찾기에서 상품권 종이를 많이 찾은 사람은 다른 팀에게 나누는 넉넉한 모습도 보였다. 점심시간, 보현회는 준비해 간 보쌈, 순대, 밥과 국을 학교 급식실에서 바로 조리해 따뜻하게 대접했다. 행사 후 준비해간 선물 130여개도 전달했다. 참가한 장애인들은 "이날만 기다렸다"고 했다.

허정훈(34·지체장애) 씨는 "10년 넘게 행사에 참여했고 회장님을 알아왔다. 오늘 아침 8시에 도착해 준비할 정도로 기다렸다"며 "빈혈도 있고 건강이 안 좋지만 이렇게 운동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보현회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시절, 고아원과 장애시설을 돌며 봉사했다. 봉사를 하던 중에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고심하다 체육대회를 기획하게 됐다.

안성이 회장은 "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이 많았다. 그 당시엔 먹거리도 구하기 어려웠으니 풍성하게 먹이려 애썼다. 그리고 운동으로 건강을 챙겨주고자 시작하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 번씩 시설에 가서 아이들을 마주치면 언제 운동회 하느냐고 항상 물어본다.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는데 어느새 20년이 흘렀다"며 미소 지었다.

하성미 기자

청소년합창제 대상 '마산제일여중'

(사)부산파라미타 4일 개최


청소년합창제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 마산제일여중 학생들.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며 개최된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올해의 대상은 마산제일여중에게 돌아갔다.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는 11월 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창립 21주년을 기념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청소년합창제 올해 대상 영예는 마산제일여중이 안았다. 마산제일여중은 노래를 통한 화합과 인성교육을 지향하고, 경남도학예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금상은 한스쇼콰이어, 은상은 명인중이 받았다. 동상은 마산제일여고와 아산중이 각각 수상했다.

백명숙 부산파라미타협회장은 "이번 대회가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아름다운 화음을 완성했다'는 행복한 이야기 한편이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대회사를 밝혔다.

한편 청소년합창제에는 총재 경선 스님, 백명숙 협회장, 김석조 前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석준 교육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